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대출 지원

정부 특별법 마련... LH서 피해주택 사들인 뒤 임대키로 광주시-LH-광주도시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한 광주시도 유관 기관들과 함께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야권과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先) 보상 후(後) 보상 청구' 등 보증금 직접 지원 방안은 배제됐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강릉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광주도시공사 등은 27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 열린 간담회에선 광주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도 참여해 기관별 대응 방안과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청년 전세 반환 보증료 지원을 통해 법적 보호망을 제공한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만 19~39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가 대상이다. 1인당 12만~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연말까지 임대 주택 3만9594 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한 전수조사 일정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주택 경매 등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 LH, 광주 도시공사, HUG는 긴급 주거지원에 나선다.

광주 도시공사나 LH가 보유한 매입 임대주택 등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한다. 광주시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대출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4000만원 또는 임차 보증금의 80%, 금리는 1.2~2.1%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범불합당, 금융지원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거 위기에 몰린 경우에는 긴급히 주거지원을 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광주연구원 설립 본격 착수

광전연 조례 개정 5월1일 심의...이사회 15명·연구원 35명

광주시가 광주전남연구원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광주연구원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기존에 있던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은 이사회 운영과 연구과제 및 성과, 광주전남연구원의 재산 및 권리·의무 승계 등을 담았다. 개정 조례안의 명칭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됐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이사장과 원장,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원장

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연구원의 정원은 35명으로 출발해 내년에는 40명, 2025년 45명, 2026년 5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출연금은 리모델링비 등 5억원을 포함해 4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어 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5년 광주·전남 상생 1호 사업으로 통합한 광주전남연구원은 민선 8기 출범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기능이 약화됐으며 재분리 여론이 나왔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의회-경북도의회

'영호남 상생발전 화합대회'

전남도의회는 27일 순천·여수 일대에서 경북도의회와 '영호남 상생발전이 대한민국 미래다'를 주제로 '2023년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호남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회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측 의원들은 이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보며 '생태와 인간의 공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인구소멸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영·호남의 현실에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배한결 경북도의회 의장은 "전남과 경북간 교류의 폭이 더욱 커지고 뜻이 하나로 모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전남·경북도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9년 동안 교류와 협력을 다져온 친구"라며 "경북과 전남의 어디에 살아도 수도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과제 발굴과 추진에도 양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남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상호교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 보물 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불교 혁신운동 거점·관련 기록 풍부

18세기 불전 건축의 장식화 경향을 보여주는 '강진 백련사 대응보전'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특히 18세기 건축적 특징과 기록이 풍부하고 역사적 의미도 깊어 보물로서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백련사 승려들이 다산 정약용(1762-1836)과 협업해 '만덕사지'를 편찬하는 등 불교와 유교의 교류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은 고려 말 원묘국사 요세(1163-1245)의 결사처이자 조선시대 많은 승려들이 수행했던 강진 백련사의 대응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불전인 대응보전은 공포의 형식과 조각 등 세부기법이 화려하다. 기둥 상부의 용머리 조각과 천장 상부의 용머리 장식 등이 해학적이며 섬세하게 표현돼 있다. 1760년 화재 이후 1762년에 중수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단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대응보전 중수 기록인 '만덕산백련사대법당중수기'와 사찰 기록인 '만덕사지' 등이 전해지고 있어 불교사와 건축사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울러 대응보전 현판 글씨는 조선 후기 명필 원교(圓峯) 이광사의 작업이며 법당 실내에는 신라시대 명필 김생의 글씨가 집사돼 있다.

한편 문화재청 관계자는 "백련사 대응보전은 고려와 조선 불교사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며 "치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만덕사지'가 전하고 있어 불교사 맥락에서 사찰과 불전의 건축생산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삼국시대부터 살아온 식물플랑크톤 발견

순천만 습지...전세계 1종 보고 돌말류 기페니아속 신종

전 세계에 1종만 보고된 식물플랑크톤 분류군인 기페니아(Giffenia)속 신종이 한국에서 발견됐다.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18년 6월 순천만 습지에서 채취한 퇴적도를 분석한 결과 돌말류 기페니아속 생물종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돌말류는 바다와 강 등 물에서 부유하거나 습한 토양과 돌 등에 붙어 사는 식물플랑크톤의 일종으로 광합성을 하는 생태계 주요 일차 생산자다. 기페니아속 신종에는 한국에서 발견된 점을 강조

한 '기페니아 코리아나'라는 이름이 붙었다. 기페니아 코리아나는 기존에 보고된 기페니아속 유일종인 '기페니아 코코넬리포시스'보다 길이가 22.5μm, 폭이 13.5μm 크고, 등줄이 약 45도로 휘는 특징이 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1천400년 전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순천만 습지에서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관은 기페니아 코리아나를 국가생물종목록에 추가할 계획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 매도 7억7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청계면 강림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전북 김제시 삼암지 2,573.7㎡ (778평)

- 은행 30억 매도, 은행 포함하고 5억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 컨테이너 있고 공사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이형기(400105-XXXXXX)
• 최후주소: 광주 광산구 사암로 251, 202동 302호(월곡동, 하남부영아파트)

피상속인 망 이형기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광역시법원 2023년 4월 27일 12월 12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승계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28일

• 상속인: 이광주(620124-XXXXXX)
광주 광산구 사암로287번길 14-11 (월곡동)

• 신고기간: 2023. 4. 28. ~ 2023. 7. 8.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광주의 주소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 제출공고)

주식회사 오성 (이하 "오"라 한다)과 주식회사 장호 (이하 "장"이라 한다)는 2023년 4월 27일 과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재산(영양)의 일부인 전기공사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관리권자는 "을"이 승계하고, 상법 제530조의 9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재산에 관하여는 반대채권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익이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로부터 1개월 내로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의 종류: 전기공사(업종번호: 경기049040)

2023년 4월 28일

"갑" 주식회사 오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파로28번길 39, 1층 (안양동)
대표이사 최경주

"을" 주식회사 장호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로길 39-3
대표이사 강승정

분실공고

• 임대차계약서: 광주 북구 동문대로 249번길11, 각화아파트1001호1722호
• 계약자: 강 중 민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3년 4월 28일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92)

1.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배산면 배산리 배산리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 위치: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림리 1701-14, 1701-15, 1701-17, 1701-19, 1701-21, 1702-11, 1702-13, 1702-14, 1702-17, 1702-19, 1702-21, 1702-22, 1703-18, 1703-20, 1703-22, 1703-23, 1704-23, 1704-26
- 발전소 면적: 383,015㎡
- 공고기간: 2023.04.28.~2023.05.05.(7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41,098kW
- 사업기체제정일: 2026년 04월
- 사업영역기간: 2026.04.01.~2046.03.31.(20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배산면 배산리 배산리 태양광 발전사업자 임명권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3.04.28.~2023.05.05.(7일간)
- 의견제출방법
전화: 02-6253-8000 팩스: 02-6253-7777
E-Mail: help@soolenergy.co.kr
2023년 4월 28일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3년 3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28일

주식회사 하하사
광주광역시 동구 계봉로 50 (남동)
청산인 최은 석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